

초저출생 시대, 문제의 본질을 향한 다큐의 접근

빈정현
EBS PD

목차

- 1 들어가며
- 2 여수MBC(Radio) 〈15%의 이야기-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의료 격차로 인한 이중고
- 3 KBS(TV)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일자리 격차가 만든 인구 감소 위기
- 4 EBS(TV)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
붕괴되는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 5 마치며

요약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을 사수하고 있다. 초저출생 애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립된 지 20년. 많은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여되고 있지만 인구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들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도 진화하고 있다. “청년들이 아이를 왜 낳지 않는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쳐왔고, 무엇을 놓치고 있나”에 주목하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 격차로 인해 지역 난임 부부가 겪는 이중고를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낸 여수MBC-FM 〈15%의 이야기〉, 지역 일자리 격차에 주목하게 만드는 KBS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그리고 초저출생 시대 붕괴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일깨우는 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 세 편의 다큐멘터리가 제기하는 문제 의식을 통해 저출생에 대한 생산적 담론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1. 들어가며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0.74명. 2015년 이후 끝없이 하락하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학대학원 명예 교수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2022년 한국 출산율을 듣고 깜짝 놀라며 머리를 부여잡는 스티커가 화제가 됐던 데는 현재의 출산율에 대한 사람들의 무력감과 자조감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림 1] 조앤 윌리엄스와의 대화



출처 : EBS

한국의 경우 1983년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 2.1명 선이 무너졌고, 2002년에는 초저출산 사회의 기준인 1.3명 선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² 2005년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립된 후 이제 20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방송에서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이 큰 문제라고 수십 년간 외쳐왔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 저출생 이슈는 참 어려운 주제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지만 “그래서 나보고 어찌라고?” 싶은 이야기.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4.12.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이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그럼에도 저출생·인구 위기는 ‘나’와 ‘우리’의 문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여러 문제들은 근 미래의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삶에 반드시 닿아 있다. 이미 지금 그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저출생 현상을 “지금의 청년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만 보면 시각이 협소해진다. 저출생을 다루는 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조건을 점검하는 작업에 가깝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작동해 온 시스템과 믿음에 질문을 던지고, 찬찬히 더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의 축을 움직이기 위한 한 단계 더 나아간 논의의 장이다.

방송 하나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겠느냐 싶지만, 긴 시각으로 보면 방송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본질에 접근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왔다. 이에 충실한 사례 취재가 돋보이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 세 편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여수MBC-FM <15%의 이야기>, KBS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 골든타임>이 바로 그것이다.

2. 여수MBC(Radio) <15%의 이야기-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의료 격차로 인한 이증고

여수MBC-FM은 지방 난임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4부작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다. <15%의 이야기>의 15%는 바로 우리나라 난임 부부의 비율이다. 결혼한 부부 일곱 쌍 중 한 쌍이 난임인 셈으로, 이는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혼인·출산·연령, 사회·환경적 요인 등으로 난임 부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역시 해마다 증가해, 2006년 1.2%였던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은 2022년 16년 만에 9.3%로 훌쩍 뛰었다.³ 한 해 태어난 아기 10명 중 한 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는 의미다. 지금의 한국에서 난임은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지만, 난임 부부가 겪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라디오 다큐멘터리 <15%의 이야기>는 특히 ‘지방’ 난임 부부에 집중해 이들이 겪는 네 가지 ‘벽’을 다뤘다.

3) 조선일보(2022.07.06). “난임시술 지원, 가장 효과 큰 저출산 대책”

[그림 2] 15%의 이야기-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출처 : 여수MBC

1부 ‘인식의 벽’은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야기한다. 난임은 누구에게도 쉬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다. 2023년 14만 건의 난임 시술 중 3만 7천 건, 즉 27%만이 임신으로 이어졌다.⁴ 시술을 받는다고 내가 그 27%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이를 기다리며 시술을 받는 과정이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느낌’이라는 사례자의 증언은 난임 부부가 겪는 고통을 짐작케 한다. 가까운 가족부터 사회적 관계까지 의도치 않은 주변의 시선에 부부는 상처를 받게 되고, 시술에 실패할 경우 여성은 ‘내 문제인가?’라는 더 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2부 ‘시간의 벽’은 지방 난임 부부들이 겪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 난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한 번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한 달을 매달려야 한다. 거기다 수도권이나 큰 도시에 집중된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병가를 며칠 내고 난임 시술을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회사는 그 사정을 이해하지 않는다. 언론사, 대기업, 중소기업, 교직 등 다양한 직군의 사례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이 현실을 증명한다. 시술 당일에만 겨우 휴가를 쓰고, 배우자의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감생심인 상황에서 한 사례자는 고차수 환자가 된 후 병가를 낸 이유를 난임이 아닌 우울증 진단으로 꼽았다. 조직에 민폐를 끼친다고 인식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4) 서울신문(2024.07.02). 난임이 아이로 이어지는 날까지.

난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갖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복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면서 정부는 연간 3일(유급 1일)이었던 난임 치료 휴가를 2월부터 연간 6일(유급 2일)로 늘렸지만,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난임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김명희 회장의 말은 이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힌트를 제시한다.

3부 ‘지방의 벽’은 지방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전남 서부권에 난임 전문 병원은 전무하고, 동부권으로 넓혀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둘 다 가능한 병원은 순천시에 한 곳뿐.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병원 시간을 맞추기 위한 첫기차를 예매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교통비, 숙박비, 시술비 등을 고려하면 지방 난임 부부들이 난임 치료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세계 일주와 맞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도 난임 시술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 난임 부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마지막 ‘정책의 벽’에서는 지방 난임 부부에게 특히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난임 관련 정책들은 다행히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 횟수는 아이 당 25회로 사실상 횟수 제한이 없어졌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난임 부부들에게는 교통비 지원도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은 여성의 나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을 없앴지만, 전라남도도 여전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15%의 이야기>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지방 난임 부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한다. 경험을 공유해 준 난임 부부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을 이 프로그램은 쉬이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공론화함으로써 지방 난임 부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다각도로 문제에 접근했다. 지방이 겪는 의료 격차 문제는 비단 난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곳에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 그것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3. KBS(TV)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일자리 격차가 만든 인구 감소 위기

영국 인구학 석학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 이던 때였다. 그리고 2020년을 변곡점으로 한국의 전체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출산율은 2024년 0.74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좀 줄어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가 경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전 국토에 걸쳐 균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KBS 추적 60분에서 선보인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에서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전남 순천시 승주읍. 한 때 군청소재지이기도 했던 승주읍은 순천시에 통합되면서 군에서 읍으로 격하됐다. 군청사와 주변 주택가, 상가는 폐허가 되고 번듯한 직장이었던 KT지사는 문을 닫았다. 한때 1만 2천여 명이었던 인구수는 현재 2,400여명으로 급감했고, 2023년 출생신고는 단 한 명이었다. 이는 승주읍에 국한되는 사례가 아니다. 전국적 문제다.

[그림 3]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출처 :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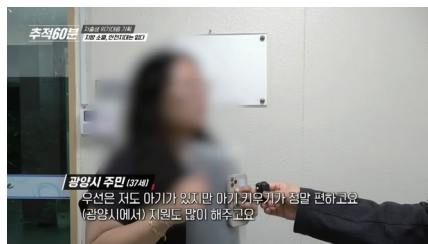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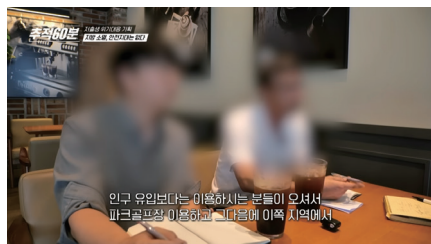


지방 소멸과 고립 현상은 고속버스터미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의 터미널은 봄여야 할 여름 휴가철에도 한산하다. 이용객 감소로 하루 121회 운행하던 버스 노선은 41회로 축소됐다. 표 발권은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가 한다. 버스 이용객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지역에 의료 시설이 부족해 타 지역 병원을 가기 위해 이용하는데, 이 터미널은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 이미 2018년 이후 전국 36곳에서 버스터미널이 폐업했다.

지방 중에서도 시골의 문제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다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주목했다. 부산 내 대형마트 폐점 사례를 시작으로 향토 기업들이 부산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취재했으며, 부산 청년 10명 중 7명이 일자리 문제로 부산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80%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자체가 스펙이 되는 세상”인 것 같다고, “부산에 자리가 있으면 진짜 내려오고 싶다”고 말하는 부산 청년들의 인터뷰가 지방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립 박사는 “지방의 인구 위기는 저출산이 누적된 것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지방 청년의 위기를 들여다 봐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일자리다. 지역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발굴하는 지자체의 안목과 정부의 지원, 기업의 의지가 모두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투입되는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 그 예로 충남 논산시는 훈련소 입소 때 찾는 면회 가족들을 위한 도시 환경 정비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경남 창원시는 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파크 골프장 조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이름표만 붙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4]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출처 : KBS

다큐가 제시하는 대안은 전남 광양시 사례다. 제철소 및 2차 전지 사업에 주력하며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의 노력,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마련한 주거, 출산, 육아 지원책 등을 소개한다. 굴지의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는 광양시가 상대적으로 특혜 받은 지역으로 느껴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중공업 등 대기업을 끼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타 지역 사례들을 비교해서 제시했어도 좋았을 듯하다.

KBS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는 전국 방방곡곡을 취재하며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위기 현장을 성실하게 담아냈다. 상징성 있는 사례 선정과 주민들의 생생한 인터뷰로 그 위기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제시한다. 수도권과 지역의 일자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 저출생이 누적되어서가 아니라 청년 인구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4. EBS(TV)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 골든타임>, 붕괴되는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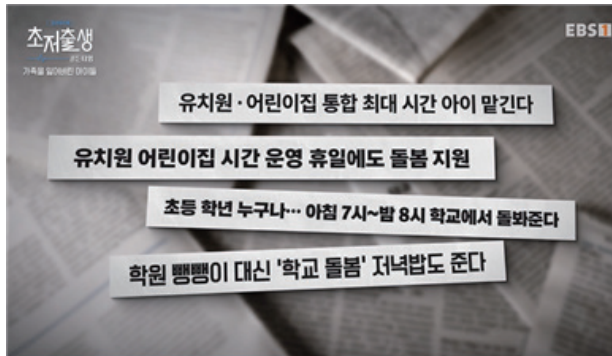
EBS는 2023년 방송된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에 이어 2024년 시즌2인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 6부작을 내놨다. 후속작은 ‘우리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가 아닌 ‘우리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며, 치열한 경쟁에만 매몰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현실을 짚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전 편에 걸쳐 지금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시리즈로, 방대한 취재 속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제의식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겪는 가족에 대한 경험을 조명한 것이다. ‘2부.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편은 유아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사례자 취재를 세로축으로 두고, 실험과 설문조사, 전문가 분석을 더했다.

다큐에서는 세 쌍의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을 진행한다. 부모에게 학교, 학원, 집을 의미하는 색깔 블록으로 아이의 실제 하루를 시각화하게 하고, 그 중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블록에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 부모는 당황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음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역으로 아이에게 지금의 시간표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을 노란색으로 바꿔보게 한다.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아이도 있었지만, 한두 시간만 바꾸는 아이도 있었다. ‘엄마가

아프면 집에 일찍 오고, 아프지 않으면 집에 늦게 온다’는 아이의 인터뷰. 아이에게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은 엄마가 아프다는 의미였다.

[그림 5]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 골든타임



출처 : EBS

가족과의 시간을 갈망하던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상황이 바뀐다. 학업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커지고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진다. 행복에 필요한 가치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은 ‘가족’이란 답이 가장 높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돈’으로 역전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비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을 꼽았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가치’를 꼽았다. 노동 중심 사회에서 아이들이 축적한 가족의 경험은 본인들이 꾸릴 다음 가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노동 문화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눈 여겨 볼 두 번째 문제의식은 저출생과 둘째아 이상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3부. 둘째가 사라졌다’편에서는 지금의 낮은 출산율에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의 영향이 있음을 데이터로 제시한다. 둘째, 셋째의 출산 결정에는 사교육비가 주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국에서 사교육은 점점 더 어린 연령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2부에서 짚은 ‘물질적 가치’와도 닿아있는 맥락이다. IMF 이후 경제적 성공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내 아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모의 불안이 아이를 사교육 시장으로

이끌고, 부모는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림 박사는 이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그림 6]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 골든타임



출처 : EBS

다큐 말미에 아이들에게 꿈을 묻는다. 야구 선수, 의사, 캐릭터 디자이너, 식물 유전 세포학자 등 다채로운 꿈이 쏟아진다. 그리고 질문을 바꿔 다시 묻는다. 실제 20년 후 너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냐고. 아이들의 답변엔 현실이 묻어있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더 벌기 위해 알바를 뛰어야 할 것 같다”, “이도 저도 힘들어 백수일 것 같다”.... 아이들은 어른의 투영이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지역의 붕괴되는 분만·육아 인프라 현황에 주목하며, 현금 지원보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임을 짚는 ‘부. 인구소멸,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의 문제의식도 유의미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인책으로 지자체들은 현금 지원 비중을 높이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무너지면 그 지역은 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낸 출산 지원정책 효과성 분석 보고서는 육아 인프라에 대한 예산 투여가 현금 지원보다 3배 이상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없애는 것은 건물 하나를 없애는 것 이상의 여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나가며

라디오 다큐멘터리 <15%의 이야기> 그리고 두 편의 TV 다큐멘터리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골든타임>. 이 세 편의 프로그램이 보여준 초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향한 다큐멘터리적 접근을 살펴보았다. 저출생·인구 위기는 참 답이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의 조건과 우리 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제는 저출생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좋은 교육은 무엇인지, 일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괜찮은 인생은 무엇인지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논의의 장이 펼쳐지길 희망한다.